

농식품부, 'AI 농업·농촌 대전환 전략' 발표

관계부처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I)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경쟁력 있는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스마트농업 정책이 생산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유통과 소비, 농촌 생활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선도 농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농업인과 주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전은 'AI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이며,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농가 규모와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반복 작업이 많은 노지에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AI 솔루션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중소 농가용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과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농촌진흥청의 'AI 이삭'과 같은 음성 기반 AI 서비스도 확산된다. 고가의 농기계와 AI 솔루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 단위 스마트 농기재 공유센터 도입

과 정책자금 개선도 추진한다. 국가 농업AI 플랫폼을 통해 민·관 합동 AI-Farm과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가칭 NEXT Farm)를 조성하고, 주요 작물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과 단계별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기상·재해 데이터를 분석한 AI 재해 위험지도, 지하수 가용량 예측, AI 방역 드론과 거점 소독시설 무인화 시범 등을 통해 위기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산지 유통 거점 스마트 APC 300개소 조성을 목표로 AI 적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 특화 물류체인 시범

구축, 축산물 AI 등급판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쌀, 원예농산물,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의 AI 수급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가격 안정성을 높이며, 2026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 수급 예측을 지원한다. 소비자용 '알뜰소비정보 앱'도 시범 출시하여 합리적 구매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농촌 생활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스마트 농촌생활권 100개 이상을 구축하고, 1인 고령 가구를 위한 교통·생활·환경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희시설과 지역자원 정

보를 활용한 지역 창업과 농촌관광 활성화, AI 기반 교육·체력 확대, 돌봄반장 역할을 하는 'AI 선생님' 운영 등으로 주민과 농업인의 AI 역량을 높인다.

AI 생태계 기반 조성 차원에서 디지털 AI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농식품 스타트업 육성과 맞춤형 컨설팅, 기술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유망 스타트업 3,000개사를 집중 육성한다. 데이터 가치 평가 체계 구축으로 민간과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조직과 민·관 협의체 운영, 범부처 협의,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통해 AI 전환 기반을 강화한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진원, 현장 교육·상담 서비스 운영

재해 대응 위해 현장 체감형 교육 추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스마트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고장과 정책 정보 확인의 어려움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현장 지원센터'를 통해 기자재 사후관리 현장교육과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농업 확산과 함께 기자재 고장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 현장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590호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1%의 농가는 간단한 고장의 경우 직접 수리를 희망하지만 원인 파악이 어려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사업과 보조금 제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주체와 신청 절차가 다양해 현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농진원은 2025년 5월부터 '스마트농업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현장 대응 역량

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현장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후관리 현장 교육은 전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총 24회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 발생 시 점검 및 조치 방법, 자연재해 예방·대응 방법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장 유형과 현장 질의 사항을 분석해 교육 교재에 반영하고, 농협 등 관계기관의 수고를 반영해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자가 조치 역량을 높이고 스마트농업 기자재 운영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교육에 관심 있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농업 상담센터를 통해 교육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

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운영시간 외에도 지원사업과 보조금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

농진원은 상담 채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 이용 패턴을 분석해 상담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상담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안호근 원장은 "스마트농업은 도입 이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농식품부, '쌀산업기여도 평가' 개시

안전관리·유통질서 반영한 평가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3월 16일부터 RPC·DSC·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정부 지원을 받는 RPC(Rice Processing Complex), DSC(Drying & Storage Center), 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 평가는 2018년부터 실시돼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10개 업체(RPC 174개, DSC·임도정업체 36개)가 참여했다.

올해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 4,308억원으로, 참여 업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금리 3.97% 기준 1.47~3.47%포인트의

이자보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 평가에서 세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평가지표를 기존 5개 분야 38개 지표에서 4개 분야 30개 지표로 간소화해 불필요한 지표를 줄이고 평가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부 전경

불합리한 벼 출하가격 인상은 감점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 유통과 안전 관리 강화도 유도한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도 낮은 금리 적용과 자금 배정 한도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연계사업명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 자금지원(평가)'에 접속해 신청하고 실적 증빙서류를 입력하면 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RPC·DSC 등 주요 산업 주체 육성 및 수급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한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주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 쌀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농진청, 단감 '감풍' 면적 2년 새 2배, 고품질 시장 수요 대응 보급 확대

대과·고당도 단감 '감풍' 재배면적 2년 새 2배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단감 대과종 품종 '감풍'의 재배 면적이 최근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며 고품질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품종으로 평가됨에 따라,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감풍'은 '대안단감'과 '태추'를 교배한 품종으로, 전남 나주 기준 수확 시기는 10월 20일경으로 중만생종에 속한다.

평균 열매 무게는 410g으로 일반 단감('부유')보다 약 2배 크며, 당도는 평균 15.3브릭스로 달콤하고 식감이 이삭하다. 주요 특징으로는 껍질 균열,

꼭지들림, 과정부 열과 등 생리 장애 발생이 적고, 상품과율이 60~70%로 높다.

수확 발생이 거의 없고 꽃 하나 당 열매가 잘 달려, 꽃·열매 숙기 부담이 적어 재배 관리가 용이하다. 다만, 열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지주(덕) 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탄저병에 대한 철저한 방제가 요구된다.

또한 일부 생리적 낙과가 발생할 수 있어, 꽃가루 제공 나무(수분수)를 5~10% 정도 심는 것이 권장된다.

농촌진흥청 자체 조사에 따르면, '감풍' 재배 면적은 2023

년 62.8헥타르(ha)에서 2025년 119.0헥타르(ha)로 약 1.9배 증가했다.

특히 묘목 판매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예상 재배 면적은 354.3헥타르로, 국내 전체 단감 재배 면적의 약 4%에 해당한다. 농촌진흥청은 경남 창원시, 전남 고흥군, 영암군 등에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배연구센터 전지혜 센터장은 "대만·싱가포르·홍콩을 대상으로 '감풍' 시장성 평가와 시범 수출을 진행 중이며, 스페인·호주에서는 품종 출원과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높은 당도와 이삭한 식감, 안정적인 재배 특성을 갖춘 '감풍' 보급을 통해 우리 단감의 국산화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감풍' 묘목 구매와 재배 기술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로 하면 된다.



▲감풍 재배 모습

10년을 지나,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여 더욱 도약하겠습니다.

- 친환경 안심축산업 실현
-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 축산환경 전문가 인력 양성·교육
- 데이터 기반 축산환경 개선

